

1. 60 년 안씻은 '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사나이' 94 세로 사망

송고시간 2022-10-26 09:43

요약

공유
댓글
글자크기
인쇄



강진욱 기자기자 페이지

가. 이란서 외톨이 생활..."젊을 때 마음의 상처로 기행"
나. "몸에 물 닿으면 죽는다 믿다가 최근 목욕 후 병 걸려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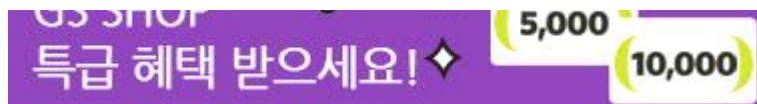
마음의 상처로 60 년 넘게 씻기를 거부한 이란의 하지 씨

[AFP 연합뉴스 자료사진. DB 및 재판매 금지]

(서울=연합뉴스) 강진욱 기자 = 60 년 넘게 몸을 씻지 않고 홀로 살던 이란의 외톨이 노인이 94 세의 일기로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 미디어가 25 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영국 가디언과 BBC 에 따르면 "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나이"라는 오명과 함께 '아모 하지'(하지 아저씨)라는 애칭으로 통했던 이 노인이 23 일 이란 남부 파르시주 데즈가 마을에서 사망했다.

그는 얼굴까지 온통 검댕을 뒤집어쓴 채 벽돌 오두막에서 살면서 60 년 넘게 물과 비누로 몸을 씻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.



마을 사람들은 그가 "젊었을 때 입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" 씻기를 거부하게 됐다고 말해 왔다.

ADVERTISEMENT

그의 가족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, 마을 사람들이 홀로 지내는 그를 돌봤다.

2014 년 테헤란타임스는 하지 씨가 로드킬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고 동물 똥을 파이프에 넣어 담배를 피웠으며 몸에 물을 대면 죽는다고 믿었다고 보도했다.

그는 당시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고슴도치를 즐겨 먹고 땅굴과 이 오두막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고 BBC 는 전했다.

또 그가 한꺼번에 여러 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사진도 공개됐다.

이란 국영 이르나통신은 몇 달 전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몸 씻기를 권했고, 그는 한동안 이를 거부하다 결국 주변의 압박에 못 이겨 몸을 씻은 지 얼마 안 돼 병에 걸렸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.

벽돌 오두막 앞에서 한꺼번에 여러 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아모 하지 씨

[AFP 연합뉴스 자료사진, DB 및 재판매 금지]

하지 씨의 사망으로 가장 오래 씻지 않은 사람의 비공식 기록은 30 여 년 간 목욕한 적이 없다는 인도인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가디언은 밝혔다.

2009 년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스는 바라나시 외곽에 사는 카일라쉬 칼라우 상 씨가 "국가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" 몸을 씻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.

바라나시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많은 인도인이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다.



싱 씨는 "불 목욕"을 좋아해 물로 씻지 않는다고, "불목욕은 물로 목욕하는 것과 똑같아서, 몸속 세균과 병균을 죽일 수 있다"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.

그는 매일 저녁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선 채로 시바 신에게 기도를 올린다고 힌두스탄 타임스는 전했다